

# 시멘트 '81 決算書

朴 鍾 璇

〈韓國洋灰工業協會 企劃課長〉

## I. 序 言

1981年度 시멘트需給은 好轉되리라던 當初의 豫想이 빛나간 것은 고사하고 큰 幅으로 負의 成長을 보였던 지난 80년에 比해서도 減量수치를 나타냄으로써 前例없는 最惡의 需給不均衡을 招來했다.

이같은 現象은 단적으로 表現해 대단위 新增設工事의 完工으로 生産能力은 擴大된 반면 需要는 內需 結핍에 따라 오히려 萎縮된데 基因한다.

說明하면 79年 下半年부터 下向局面으로 기울어진 內需事情은 80년에 顯저한 減退를 記錄, 그 深度를 더 했으나 81년의 경우는 累次에 걸친 政府의 經濟活性化施策과 油價安定· 世界經濟의 回復勢, 그리고 延 두해의 景氣低點에 對한 反騰作用까지 加勢돼 최소한 前年比 17%增加한 15,400천톤선에 이를 것으로 期待됐으며 輸出 또한 비록 赤字일망정 稼動率 提高와 市場의 계속確保를 위해 4,500천톤을 실어 낼 計劃이었다.

이대로라면 總需要規模는 約 20,000천톤에 達하게돼 稼動率도 지난해의 77%보다 약간 높은 80% 水準을 維持하게 된다.

그러나 現時點에서 今年度 需要趨勢를 돌이켜 보면 1/4分期는 보기도문 異常寒波의 影響으로 內需實績이 前年同期比 20%의 減少를 나타냈고, 2/4分期에 와서도 5.5%의 減少現象을

나타낸데 이어 3/4分期 역시 5.3%의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특히 年中最大 盛需期인 4, 5月과 9, 10月の 경우도 例年과 달리 需要패턴에 전혀 起伏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이제는 시멘트가 季節商品이라는 固定觀念도 바뀌야 될 지경에 이른 것 같다.

이로써 81年度 시멘트工場의 稼動率은 시멘트産業史上 最低率로 떨어졌고 企業의 採算性도 극도로 惡化돼 前例없는 最大의 赤字累增 現象을 가져오게 된 것이다.

周知하는 바와 같이 시멘트業界는 지난 62年 政府의 經濟開發計劃 실천과 함께 國家建設事業에 基礎資材를 供給하는 基幹産業의 位置에서 長期間 꾸준히 高度 成長産業으로 發展해 왔다.

이와같은 高度成長을 維持해온 데는 政府의 積極的인 支援과 業界의 不斷한 努力도 빼놓을 수 없는 功績이지만 가장 重要한 것은 需要가 꾸준히 뒷받침했다는데 根據한 것으로 생각된다. 經濟原論의으로 따져봐도 需要不振에 의한 需給不均衡의 狀態에서는 絶對로 成長과 發展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시멘트의 産業的· 商品의 特性으로 미뤄볼때 需要萎縮現象이 초래될 경우 시멘트企業은 즉각 엄청난 運營難에 直面하게 된다는 事實을 수없이 體驗한 바, 이는 바로 지난 64年과 71年의 不況時에 이어 現在도 實施하고 있는 共販制가 實證하고 있는 시멘트産業 特有的인 취약성이다.

따라서 本稿는 過去 시멘트業界가 高度成長을 維持하여 온 過程에 있어서의 需給變動狀況과

産業聯關表에 依한 用途別 시멘트消費構造를 簡單히 살펴보면 '81 年度의 需給狀況을 整理하고자 한다.

## II. 需給變動狀況

시멘트業界는 60 年代 政府當局의 두차례에 걸친 經濟開發 5 個年計劃의 推進과 꾸준한 建築景氣의 上昇에 힘입어 施設 및 需給 規模가 急激히 擴張되었다.

即 62~66 年 1 次經濟開發 5 個年計劃期間中 生産과 消費의 年平均 增加率은 각각 32% 및 29%로 大舉增大되었으며 또한 67~71 年の 2 次經濟開發 5 個年計劃期間中에도 生産과 消費가 각각 30% 및 27%로 飛躍的인 成長을 거듭했다.

따라서 60 年代의 需給狀況은 急速히 增加되는 需要를 生産이 뒤따라기에 及及한 樣相을 띄고 있어 恒常 潛在的인 供給不足狀況을 이루어 왔다. 이 期間中 64~65 年の 2 年間은 약간의 供給過剩現象을 겪은바 있으나 66 年부터는 다시 內需가 急激히 增加함에 따라 自給體制가 무너지게 되었으며 이러한 供給不足狀況은 68 年까지 계속되어 需給均衡에 蹉跌을 빚게 되었다. 이와같은 供給不足現象은 69 年에 이르러 雙龍東海工場(年産 1,700 千톤)과 星信洋灰의 丹陽工場(年産 1,100 千톤)이 各各 竣工되고 韓一丹陽工場이 倍加增設 함으로써 自給體制가 確立되었다.

그러나 70 年代에 들어오면서 需要는 産業全般에 걸친 不況의 餘波로 顯著하게 沈滯되어 그 동안의 供給不足現象이 供給過剩現象으로 反轉되었으며 其間의 高度成長趨勢가 크게 鈍化傾向을 보였다.

이로말미암아 擴大된 生産能力과 內需不振으로 인한 供給過剩現象이 會社間 過當競爭을 誘發케 함으로써 一部企業을 倒産의 危機로 까지 몰고간 바 있으며 이로써 業界는 不況을 打開하기 위한 自救策으로 不得已 販賣窓口를 一元化 덤핑을 防止하기 위한 共販體制를 갖추기에 이른다.

이러한 供給過剩과 需要不振現象은 72 年度를

頂點으로 極도로 惡化되어 結局은 72 年 內需伸張이 史上 처음 마이너스 成長으로 轉落하게 되었다.

이와같은 需給不均衡現象은 73 年을 고비로 다시 反轉, 生産과 消費가 每年 增加勢를 維持함으로써 72~76 年에 各各 1.8 倍와 1.6 倍의 伸張을 가져왔는데 76 年엔 亞細亞와 韓一이 各各 1,100 千톤 規模의 生産施設을 追加시킨 바 同年의 內需增加는 그간의 幅넓은 增加率과는 달리 겨우 6% 增加에 멈춤으로써 需給規模가 다시 過剩現象으로 逆轉하였다. 이리하여 75 年 3 월에 解體했던 共販體制는 76 年 7 月을 期해 다시 政府當局의 物價安定 및 公正去來에 關한 法律에 依據 設立許可를 받게 되었다.

그러나 國內景氣循環은 美國의 달러放任主義 政策과 이에 힘입은 先進國들의 擴張政策이 서둘러 施行된데 편승, 上昇氣流를 타게된 바 特別히 不動産 投機過熱現象으로 因하여 建築景氣가 大好況을 이룬 가운데 때를 같이하여 政府側에서도 農漁村住宅改良事業 등 새마을事業을 積極化, 需要가 爆發的으로 增大됨으로써 內需伸張이 前年對比 24%로 急增하였다.

이에 따라 需給規模는 不過 1 年前과는 正反對現象으로 供給이 絶對過不足, 마침내는 輸出을 中斷하고 日本으로부터 255 千톤을 緊急輸入하는 등 國內시멘트 需給安定을 위한 總力이 傾增되었다. 시멘트不足現象은 77 年부터 79 年 上半期까지 近 2 年半동안 계속되었는데 同期間中 生産은 年平均 12%, 增加된데 비해 內需는 무려 2 倍에 가까운 21%의 伸張을 가져왔다. 이에 政府와 業界가 또다시 新規의 施設擴張 計劃을 마련하고 앞서 推進하여 오던 雙龍 및 星信의 增設工事が 거의 마무리 段階에 들어설 무렵인 79 年 下半期에 즈음, 爆發的이던 內需增加趨勢가 公교롭게도 서서히 下向局面으로 접어들기 始作해 同年의 需給伸張이 크게 鈍化되었다. 即 供給側面에서는 雙龍東海工場의 大單位 增設工事 5,600 千톤中 1 次分 2,800 千톤과 星信洋灰의 1,100 千톤增設이 各各 79 年 下半期를 起點으로 稼動, 生産量을 大幅 增大시킨데 反해 需要側面은 77~78 年の 過熱景氣로 惹起된 인플레이現象과 社會的混亂을 수습하기 위한 政府當局의 緊

시멘트需給狀況

<表-1>

(單位: 千噸, %)

區分 年度	生産能力(年間基準)			供給			需要			
	能力	增加率	增加量	生産	增加率	輸入	内需	增加率	輸出	增加率
1962	728	28.6	162	790	54.6	180	977	70.5		
1963	728	0	0	778	△ 1.5	278	1,063	8.8		
1964	1,263	73.5	535	1,243	59.8	-	1,168	9.9	31	
1965	1,748	38.4	485	1,614	29.9	-	1,467	25.6	134	332.3
1966	1,782	2.0	34	1,884	16.7	190	1,902	29.7	171	27.6
1962-66 平均增加率 (伸張率)		28.5 (244.78)			31.9 (238.48)			28.9 (212.18)		
1967	2,462	38.2	680	2,441	29.6	534	2,766	45.4	199	16.4
1968	3,508	42.5	1,046	3,574	46.4	106	3,371	21.9	281	41.2
1969	5,645	60.9	2,137	4,865	36.1	12	4,288	27.2	592	110.7
1970	6,919	22.6	1,274	5,822	19.7		5,331	24.3	612	3.4
1971	6,919	0	0	6,872	18.0		6,102	14.5	1,094	78.8
1967-71 平均增加率 (伸張率)		32.8 (281.03)			30.0 (281.50)			26.7 (220.61)		50.1
1972	7,435	7.5	516	6,486	△ 5.6		5,672	△ 7.0	1,191	8.9
1973	8,111	9.1	676	8,180	26.1		7,182	26.6	1,553	30.4
1974	10,100	24.5	1,989	8,838	8.0		7,655	6.6	1,876	20.8
1975	11,196	10.9	1,096	10,129	14.6		8,435	10.2	2,463	31.3
1976	12,977	15.9	1,781	11,873	17.2		8,983	6.5	3,666	48.8
1972-76 平均增加率 (伸張率)		13.6 (174.54)			12.1 (183.06)			8.6 (158.37)		28.0
1977	15,420	18.8	2,443	14,418	21.4		11,117	23.8	4,040	10.2
1978	15,785	2.4	365	15,467	7.3	266	14,762	32.8	1,869	△ 53.7
1979	18,950	20.1	3,165	16,614	7.4		15,825	7.2	1,774	△ 5.1
1977-79 平均增加率 (伸張率)					12.04 (115.42)			21.25 (142.35)		
1962-79 平均增加率 (伸張率)					22.53 (2,106.46)			22.38 (1,619.75)		
1980	22,185	17.1	3,235	15,573	△ 63		13,172	△ 16.8	4,409	148.5

縮政策強化 및 8·8 不動産規制措置, 그리고 雪上加霜格의 第2 石油波動 등으로 國內景氣가 크게 萎縮된데 따라 内需實績이 前年比 7% 増加에 머물게 되었으며 輸出에 있어서도 政府當局의 禁輸措置로 因하여 船積量이 1,774 千噸에

그치게 되었다.

以上과 같이 60 年代 以後 70 年代 末까지 成長過程과 함께 需給變動狀況을 概略적으로나마 살펴본바, 시멘트業界의 成長은 60 年代의 開發期와 70 年代 前半의 擴張期를 거쳐 後

半期부터는 成熟期段階에 突入했다고 할 수 있으며 需給變動狀況은 한마디로 供給不足—施設擴張—供給過剩의 過程을 不過 2~3年 周期로 反復해온 셈이다. 이와같은 實例로 보아 시멘트 工業은 典型的인 裝置産業으로써 政府施策과 社會潮流에 민감한 産業일뿐 아니라 急激한 需要 伸縮에도 對備하기 어려운 構造的 脆弱點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Ⅲ. 시멘트 消費構造

韓國銀行에서 3年을 周期로 分析한 66年, 70年, 73年, 75年, 78年の 産業聯關表에 의하여 시멘트 消費比重이 큰 加工部門과 住宅建築, 非住宅建築, 建築補修, 公共事業, 기타事業 部門에 對한 用途別 消費構造를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 1. 시멘트 加工製品

非金屬鑛物製品은 시멘트 消費率이 아주 낮은 陶磁器, 유리 및 유리製品, 建設用粘土製品 등과 시멘트消費의 主宗을 이루고 있는 시멘트 製品 卽 시멘트벽돌, 電柱, 파이프, 塡管, 기와 등으로 크게 分類되고 있다.

이 部門에 대한 시멘트投入額의 構成比는 66年 8.62%, 70年 6.41%, 73年 7.86%, 78

年 7.87% 水準으로 各各 算出되었으며 이 部門에서의 시멘트消費量은 66年の 164 千톤에서 70年 342 千톤, 73年 565 千톤, 78年 1,162 千톤으로 계속 增加되었다.

한편 이 部門의 總產出額에 對한 시멘트投入比는 66年の 19.01%에서 73年 17.48%, 78年 10.73%로 시멘트消費의 比重이 低下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2. 住宅建築

이 部門은 非住宅部門을 包含 시멘트消費의 50%水準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시멘트業界로서는 가장 큰 關心을 갖는 분야이다.

住宅建築部門에 對한 시멘트投入額의 構成比는 66年 14.4%, 70年 20.3%, 75年 38.8%, 78年 38.23%로 75年以後 크게 높아졌다.

한편 이 部門에서의 시멘트消費量은 66년에 274 千톤, 70年 1,082 千톤, 75年 3,273 千톤 78年 5,644 千톤의 增加를 보여 시멘트 多消費 部門으로서 面目을 誇示했다. 이와같이 住宅事業에 시멘트消費量이 增大된 것은 政府의 住宅建設 促進策의 推進에 根據한다.

또 70年과 78年の 建築許可實績을 比較해 보면 延面積은 10,787 千m<sup>2</sup>에서 30,818 千m<sup>2</sup>로 약 2.8 倍, 棟數는 92,909 棟에서 149,749 棟으로 약 1.5 倍 增加했다.

年度別 建築許可實績推移

<表-2>

	棟 數 別				延 面 積 別 (千m <sup>2</sup> )			
	住 宅	商工業用	公共事業	計	住 宅	商工業用	公共事業	計
1970	80,585	9,679	2,645	92,909	5,840	3,852	1,095	10,787
1971	76,716	9,790	2,606	89,112	5,595	2,521	1,504	9,620
1972	60,832	10,494	2,827	74,153	4,524	3,057	1,120	8,701
1973	96,551	16,029	4,779	117,359	7,924	7,047	1,601	16,572
1974	109,347	13,807	5,074	128,228	10,300	5,540	1,044	16,884
1975	101,887	14,040	5,023	120,950	11,623	5,290	1,507	18,420
1976	88,323	16,936	6,321	111,580	9,494	6,734	1,757	17,985
1977	117,801	17,526	7,126	142,453	12,880	7,028	2,434	22,342
1978	124,789	17,976	6,984	149,749	17,516	10,107	3,195	30,818
1979	102,991	17,979	8,412	129,382	14,737	9,300	3,468	27,505
1980	77,695	19,319	7,467	104,481	14,740	7,875	3,112	25,727

이 部門의 總產出額에 對한 시멘트投入比는 66年에 5.09%, 70年에 5.55%, 73年에 5.28%, 78年에 6.85%로 漸進的인 增加趨勢를 보이고 있다.

### 3. 非住宅建築 및 建築補修

非住宅建築部門은 事務室, 店舖, 劇場, 遊興場, 工場, 文教用建築, 宗教建築 등으로 構成되어 있어 社會性, 公益성을 띄고 있는 것이 많다.

이 部門에 對한 시멘트投入額의 構成比는 66年에 31.6%, 70年에 28.6%, 73年에 35.2%, 75年 18.4%, 78年에 20.03%로 75年以後 크게 떨어지고 있으나 실제 物量面에선 住宅部門과 함께 시멘트消費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이 部門에서의 시멘트消費量은 66年 601천톤에서 70年에는 1,519천톤, 73年에 2,521천톤, 75年에 1,552천톤, 78年에 2,957천톤으로 75年만 除하고는 相當한 增加를 보였다.

한편 總產出額에 對한 시멘트投入比는 66年 7.15%, 70年 8.16%, 73年 7.38%, 78年 5.28%로서 住宅部門보다 뒤지고 있으며 增加趨勢도 오히려 逆調現象을 나타내고 있다. 이 部門은 鐵筋, 鐵骨造建築이 그 大部分을 차지하고 있으며 大部分의 大型建築物이 여기에 屬한다.

建築補修部門은 住宅, 非住宅建築에 對한 小

規模修繕을 위한 自家補修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서 이에 對한 시멘트投入額의 構成比는 66年 10.4%, 70年 5.7%, 73年 5.4%, 75年 6.3%, 78年 7.2% 水準이다.

이 部門의 시멘트消費量은 66年 197천톤에서 70年 308천톤, 75年 530천톤, 78年 1,047천톤으로 꾸준히 增加하고 있다.

한편 建築補修部門의 總產出額에 對한 시멘트投入比는 66年 5.66%, 70年 5.86%, 73年 5.64%, 78年 4.68%로서 78年을 除하고는 比較的 큰 變動趨勢는 찾아 볼 수 없다.

### 4. 公共事業 및 其他建設

이 部門은 大部分이 政府豫算에 依한 政府計劃建設의 形態로서 河川砂防, 道路, 上下水道, 農林土木, 都市區劃整理事業, 港灣 및 空港施設 등 社會間接資本의 性格을 띄고 있기때문에 政府의 投融資政策에 따라 比重이 크게 左右된다.

이 部門에 對한 시멘트投入額의 構成比는 66年에 27.3%이던것이 70年 20.7%, 73年 17.7%, 75年 16.5%, 78年 13.6%로 漸次 낮아지고 있다.

한편 公共事業部門에서 消費된 시멘트는 66年 519천톤, 70年 1,106천톤, 75年 1,388천톤, 78年 2,034천톤으로 크게 增加하고 있는 反面 總產出額에 對한 시멘트投入比는 66

시멘트 消費構造 및 部門別 시멘트 投入比率

<表-3>

(單位: 比率; %)  
數值; 千噸)

	1966			1970			1973			1975			1978		
	시멘트 投入比	시멘트 投入額의 構成比	시멘트 投入量	시멘트 投入比	시멘트 投入額의 構成比	시멘트 投入量	시멘트 投入比	시멘트 投入額의 構成比	시멘트 投入量	시멘트 投入比	시멘트 投入額의 構成比	시멘트 投入量	시멘트 投入比	시멘트 投入額의 構成比	시멘트 投入量
非金屬礦物製品 (시멘트製品)	5.81 (9.01)	11.66 (8.62)	222 (164)	5.64 (18.12)	10.55 (6.41)	562 (342)	5.79 (17.48)	13.10 (7.86)	941 (564)	10.09	851	3.41 (10.73)	11.27 (7.87)	1,664 (1,162)	
住 宅	5.09	14.41	274	5.55	20.30	1,082	5.28	19.19	1,378	38.80	3,273	6.85	38.70	5,713	
非 住 宅	7.15	31.57	600	8.16	28.50	1,519	7.38	35.10	2,521	18.40	1,552	5.28	20.03	2,957	
建 築 補 修	5.66	10.39	198	5.86	5.77	308	5.64	5.54	398	6.28	530	4.68	7.18	1,060	
公 共 事 業	9.02	27.27	519	6.82	20.74	1,106	6.09	17.74	1,274	16.46	1,388	4.48	13.78	2,034	
其 他 建 設	1.16	3.16	60	3.57	11.17	595	2.41	5.37	386	7.66	646	2.44	6.57	970	
小 計	5.85	86.80	1,651	6.04	86.48	4,610	5.71	82.94	5,957	97.69	7,389	4.86	97.53	14,398	
其 他	0.01	1.54	29	0.06	2.97	158	0.05	3.96	284	2.31	195	0.01	2.47	365	
計	0.50	100.00	1,902	1.44	100.00	5,331	1.01	100.00	7,182	100.00	8,435	0.48	100.00	14,762	

註: 시멘트投入比는 總產出額에 對한 시멘트投入額의 比率임.

年 9.02%, 70年 6.82%, 73年 6.09%, 78年 4.48%로써 漸次 줄어드는 추세이다.

其他建設은 公共事業과 마찬가지로 社會間接資本의 性格은 띄고있는 電力, 鐵道, 遞信建設 등을 일컫는 것으로 政府의 施策方向에 따라 그 實績이 크게 影響을 받고 있다. 이 部門에 對한 시멘트投入額의 構成比는 66年에 3.2%에서 70年 11.2%로 크게 높아졌고 73年 5.4%, 75年 7.7%, 78年에는 6.5%로 比較的 심각한 起伏을 나타내고 있으며 시멘트消費量도 66年 60천톤에서 70년에는 595천톤으로 크게 上昇했다가 73년에는 386천톤으로 다시 減少한後, 75년에는 646천톤, 78年 958천톤으로 增加하는 趨勢를 보이고 있다. 이 部門의 總產出額에 對한 시멘트投入比는 66年 1.16%, 70年 3.57%, 73年과 78年에는 各各 2.41% 및 2.44%이다.

以上の 消費構造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國內消費는 建築 및 土木部門에서 全體 시멘트消費의 80~90%, 建築部門에서만도 50% 이상을 占有, 시멘트景氣가 이들 部門에 直結돼 있음을 알 수 있다.

#### IV. 80年代의 需給狀況

80年代에 접어들면서 業界는 過去 20餘年에 걸쳐 經驗하지 못한 極甚한 不況에 빠져 들었다. 即 지난 80年度의 內需實績이 큰 幅으로 負의 成長을 記錄한데 이어 81年의 內需도 回復은 커녕 더욱 惡化되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80年代 시멘트業界의 當면과제는 不況이 물고온 企業運營上 諸難題를 어떻게 현명하게 克服하느냐에 있다고 하겠다.

##### 1. 1980年度 需給狀況

需要의 正常增加에 對備한 增設의 결과로 80年度 시멘트 年間 生産能力은 史上처음 20,000천톤線을 突破, 총 22,185천톤에 달하게 돼 우리나라는 80年基準 世界 第11位의 시멘트生産國으로 浮上하게 되었다.

그러나 國內시멘트 消費事情은 施設能力의 擴

大와는 대조적으로 지난 79年 下半期以後 政府當局의 長期間에 걸친 緊縮政策과 建築景氣의 계속적인 沈滯現象 등에 uler 前年比 17%의 減少를 나타냈다.

연쇄적으로 稼動狀況도 크게 低下돼 全體 稼動率이 77%를 記錄, 過去 20餘年間的 年平均 稼動率 97%를 무려 20%포인트나 밀돌았으며 輸出을 除外한 內需基準 稼動率도 60%에 불과, 過去平均 稼動率 80%에 比해 역시 20% 포인트 下廻함으로써 業界는 深刻的한 不況局面에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한편 輸出은 採算性에 있어 出血이 不可避하나 變動費를 下廻하지 않는 範圍內에서 稼動率을 提高하고 輸出市場을 계속 確保한다는 취지 아래 輸出增大에 總力を 傾注한바, 過去 어느 때 보다는도 가장 높은 水準인 4,409천톤의 實績을 올리게 되었다.

그러나 輸出의 增大에도 不拘하고 需給의 GAP은 內需의 激減現象에 따라 무려 5,000천톤에 達하게돼 莫大한 內外資金을 動員하여 建設한 施設이 運休狀態에 들어가게 되었다.

이와같은 시멘트需給의 엄청난 不均衡現象의 主要因은 內需不振에 있는 바 그중 民需는 前年 對比 88.4%, 官需는 이보다는도 훨씬 낮은 68.8%로 각각 激減된데 기인한다.

年度別 稼動現況

<表-4> (單位: %)

	크링카能力	內需	全體稼動率	內需稼動率
1970	6,919	5,331	90.6	77.05
1971	6,919	6,102	95.9	78.19
1972	7,435	5,672	88.5	76.29
1973	8,111	7,182	104.2	88.55
1974	10,100	7,655	92.4	75.29
1975	11,196	8,435	95.1	75.34
1976	12,977	8,983	95.9	69.22
1977	15,420	11,117	95.5	72.09
1978	15,785	14,762	98.5	93.52
1979	18,950	15,825	91.4	83.51
平均 稼動率			97.3	80.01
1980	22,185	13,172	77.2	59.37

註: 能力은 年間 基準임.

年度別 需要部門別 實績

<表-5> (單位: 千톤)

	民需	前年比	官需	前年比	內需計
1970	3,711	117.03	1,620	145.16	5,331
1971	4,168	112.31	1,934	119.38	6,102
1972	4,189	100.50	1,483	76.68	5,672
1973	6,143	146.65	1,039	70.06	7,182
1974	5,936	96.63	1,719	165.45	7,655
1975	6,223	104.83	2,211	128.62	8,434
1976	6,762	108.66	2,221	100.45	8,983
1977	8,427	124.62	2,689	121.07	11,116
1978	11,243	133.42	3,519	130.87	14,762
1979	11,636	103.50	4,189	119.04	15,825
1980	10,289	88.42	2,883	68.82	13,172

官需의 激減은 政府 投資事業이 財政赤字로 인해 縮小調整되었거나 工事發注가 保留된데 있으며 內務部의 새마을事業 및 住宅改良事業의 豫算縮小에도 影響을 받은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民需部門의 減少要因을 建築許可實績에 依據 풀어보면 다음과 같다.

80年度 建築許可 延面積實績은 全體的으로 前年比 6.5% 下廻한 93.5%에 머물렀으며 이의 用途別 內譯에 있어서는 工業用建築이 大幅減少되어 前年比 45.6%, 그다음 其他建築部門에서 76.5%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밖에 前年水準을 유지한 住居用 및 商業用 文教·社會用 등도 景氣沈滯로 許可만 받아놓고 着工을 保留했거나 遲延된 分이 많아 民需不振에 결정적 作用을 한 것으로 사료된다.

在庫狀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먼저 在庫의

80年度 需給實績

<表-6> (單位: 千톤, %)

		'79	'80	前年比	備考
供給	移越	190	473		
	生産 (稼働率)	16,615 (91.38)	15,573 (77.15)	93.73	
	計	16,805	16,046		
需	內需 (稼働率)	15,825 (83.51)	13,172 (59.37)	83.24 (71.09)	
	民需	11,636	10,289	88.42	
	官需	4,189	2,883	68.82	
	輸出	507	2,300	453.65	
	要 (크링카)	(1,267)	(2,109)	(166.46)	
	計	16,332	15,472	94.73	
在庫	시멘트 (크링카)	473 (808)	574 (1,133)		

註: ( )는 크링카로 不包含해 있음.

概念에 對하여 定義를 내리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시멘트 在庫의 範圍는 狹意로는 시멘트 形態概念上으로 包裝 및 無包裝시멘트와 場所概念上 本·分工場의 在庫만을 規定하고 있으나 廣意에 있어서는 크링카와 驛頭 및 荷置場의 消費地 在庫를 包含시키고 있다. 물론 크링카는 輸出과 國內에서의 特殊한 경우를 除外하고는 商品으로의 價値는 없으나 製造工程上 이미 80%以上의 費用이 投入된 狀態이기 때문에 製品으로 認定해도 크게 無理는 아닐 것이다.

80年度 工場在庫基準 시멘트와 크링카의 6月末 및 12月末의 在庫量은 各各 1,585千톤 및 1,707千톤으로써 이는 前年對比 各各 193.5%와

☼ 생활의 지혜 ☼

◆ 불고기 냄새를 없애는 요령

실내에서 불고기요리를 하거나 튀김요리를 하면 방안에 냄새가 가득할 뿐 아니라 옷이나 머리에도 냄새가 배어 역겨운 경우가 많다. 이럴 때는 요리가 끝난 다음 말린 골절질가루를 불에다 조금 집어넣으면 냄새가 금방 없어진다.

◆ 바퀴벌레가 많이 생겼을 때

모일러를 사용하는 가정에서는 스팀부근에 바퀴벌레가 들끓게 된다. 약을 뿌리면 죽기도 전에 먼저 도망가 버려 실패할 때가 많은데 석유를 뿌리는게 훨씬 효과적이다.

석유를 한방울이라도 맞은 바퀴벌레는 그자리에서 죽어버리고 알까지도 말끔히 소탕된다. 단 화재의 위험에 주의해야 한다.

133.2%의 증가를 나타내고 있다. 한편 消費地在庫는 6月末이 433천톤으로서 前年比 314.3%增加한데 反하여 12월에 와서는 非需期와 內需不振의 表面化로 工場出荷를 抑制하였기 때문에 前年보다 324천톤에 그쳤다.

이와같이 80年度の 稼動率이 前年에 비해 훨씬 떨어졌는데도 不拘하고 在庫가 增加하고 있다는 것은 內需가 얼마나 不振했던가를 端的으로 立證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一般的으로 現在와 같은 施設規模에 있어 시멘트의 適正在庫는 工場在庫와 消費地在庫를 合해 1,000천톤선이면 시멘트 流通過程上 別問題가 없을 것으로 본다. 그러나 80年度の 月平均在庫量이 1,600천~2,000천톤水準에 있다는 것은 確實히 過剩滯貨現象이 아닐 수 없으며 이를 金額으로 換算하면 무려 700億원 以上이 死藏되어 있는 셈이다.

## 2. 81年度 需給實績 및 展望

### 1) 1~10月 實績

1~10月까지 需給實績은 內需경우 計劃比 80.4%, 前年同期比 92%, 稼動率에 있어서도 操業史上 最低置인 72%水準에 머물었다. 더우기 輸出을 除外한 內需稼動率은 지난 80年度보다도 10%나 未達된 50%水準에 있는 바, 이는 景氣活性化의 先導의 役割을 맡아야할 建築景氣가 沈滯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따른 現象이다.

輸出은 最小稼動維持 方편으로 莫大한 赤字를 堪耐하면서도 10月末現在 이미 지난해 年間實績을 超過達成한 4,800천톤水準에 이르고 있다.

內需實績을 需要部門別로 살펴보면 民需는 前年同期比 8%줄었으며 官需는 前年水準을 겨우 維持하고 있다. 比率上 官需의 前年實績 維持는 지난해의 실적이 지나치게 不振했던데 基因한 것으로 이와같은 事實은 81年度の 調達廳 및 國防部를 통한 官需契約量이 4,490천톤에 達하고 있으나 10月末現在 實際納品量은 契約量의 折半밖에 안되는 2,503천톤에 불과하다는 숫치로도 잘 알 수 있다.

또한 民需部門이 아직도 마이너스成長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두 말할 나위없이 建築景氣의 극심한 沈滯에 기인하는바 이는 建築許可實績에 依해서도 그대로 反映되고 있다.

即 1~9月까지 建築許可 延面積은 모두 15,972천m<sup>2</sup>로 前年同期比 마이너스 22.8%, 이 중 전체의 85% 以上の 比重을 차지하고 있는 住居用 및 商業用과 文教·社會部門이 각각 前年同期比 마이너스 33.7%·11.9%·8.5%로 줄어든 것이다.

다만 工業用이 前年實績의 不振關係로 13.7% 늘었을 뿐이다.

### 2) 展 望

以上 10月까지 實績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81年度 需給事情은 사뭇 어둡기만 하다.

11月과 12月 需要가 增加趨勢로 이어진다고 해도 80年度 實績에는 크게 못미칠 것이 分明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11月과 12月은 季節의 으로 非需期인데다 10月以後 回復되리라던 景氣樣相이 오히려 沈滯쪽으로 급선회, 그나마 增加勢를 期待할 수 조차 없는 與件이다.

따라서 81年度 內需展望은 前年比 91%水準

## 在 庫 現 況

〈表-7〉

(單位: 千噸, %)

		'79		'80		前 年 比	
		6 月	12 月	6 月	12 月	6 月	12 月
工 場 在 庫	시멘트	305	808	553	573	181.66	121.37
	크링카	514	473	1,032	1,133	200.59	140.19
	計	819	1,281	1,585	1,706	113.54	133.24
消費地	시멘트	126	433	396	324	314.3	74.8
	計	945	1,714	1,981	2,030	209.63	118.44



'81 需給實績(1~10月) 및 展望

<表-8>

(單位: 千톤, %)

	'80	'81 當初計劃		'81. 1~10月 實績				'81 展望			
	實績	計劃	前年比	計劃	'80	'81	前年比	計劃比	數量	前年比	計劃比
能 力	22,185	23,463	105.76	19,542	18,273	19,542	106.94	100.00	23,463	105.76	100.00
크링카生産 稼 動 率	17,115 (77.15)	18,700 (79.70)	109.26	15,500 (79.32)	14,581 (79.80)	14,074 (72.02)	96.52	90.80	16,543 (70.51)	96.66	88.47
시멘트生産	15,573	17,800	114.30	14,800	13,226	12,871	97.32	86.97	15,071	96.78	84.67
內 需 (內需稼動率)	13,172 (59.37)	15,400 (62.12)	116.91	12,828 (62.13)	11,189 (61.23)	10,312 (49.94)	92.16	80.39	12,012 (48.46)	91.19	78.00
民 需	10,289	11,900	115.66	9,928	8,705	7,822	89.86	78.79	9,102	88.46	76.49
官 需	2,883	3,500	121.40	2,900	2,484	2,490	100.24	85.86	2,910	100.94	83.14
輸 出 (크링카)	2,300 (2,109)	2,500 (2,000)	108.70 (94.83)	2,100 (1,600)	2,007 (1,769)	2,609 (2,146)	130.00 (121.31)	124.24 (134.13)	3,109 (2,546)	135.17 (120.72)	124.36 (127.30)
計	15,472	17,300	115.69	14,928	13,196	12,921	97.92	86.56	15,121	97.73	84.47
在 庫 (크링카)	574 (1,133)	474 (1,040)		446 (1,070)	503 (1,130)	524 (861)			524 (845)		

註: (크링카)는 外需임.

인 1,200 천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需要部門別로는 民需가 9,100 천톤으로 前年比 88%, 官需는 2,900 천톤으로 前年比 100.94%로 推定되고 있다.

그러나 輸出은 11月부터 中東地域이 夏閉期를 지나 本格工事が 始作되는 時點일 뿐 아니라 今年度 契約物量의 早期船積 등이 모색되고있어 81年度 實績이 크링카輸出을 包含, 지난해 보다 1,000 천톤이 많은 총 5,500천톤에 達할 것으로 예상돼 史上 最大의 輸出高를 記錄할 것 같다.

輸出의 伸張分을 除外한 內需의 激減豫想은 稼動率提高에도 決定的인 影響을 끼쳐 全體稼動率은 前年의 平均 77%보다 7%나 떨어진 70%水準에 머물게 될 것으로 보이며 輸出을 除外한 內需稼動率은 前年의 56%보다 8%나 더 낮음 48%선에서 그칠 것으로 豫測되고 있다.

結論적으로 말해 81年度 需給狀況의 特徵은 最大施設能力과 最小需要間의 갈등구면 이라고 集約할 수 있으며 이러한 現象은 더이상 企業을 지명할 수 없는 限界的 狀況으로 보여진다.

특히 以上과 같은 81年度 需給推移의 比較基準值인 80年實績 自體가 不況期의 最低수치라는 點을 감안해 보면 業界의 試鍊이 어느程度인가를 쉽게 가늠해 볼 수 있다 하겠다.

V. 結 言

앞서 살펴본 바와같이 시멘트業界는 지난 79年以後 3年이라는 長期間동안 內需不振에 따른 需給不均衡으로 말미암아 企業의 採算性이 極度로 惡化되어 赤字累增現象을 免치 못하고 있으며 이제는 더이상 企業을 運營해 가기 어려운 限界的狀況에 까지 처하게 되었다.

둘이켜보면 정부당국에서는 그동안 景氣活性化의 先導的役割을 하는 住宅景氣를 浮揚시키기 위해 누차에 걸쳐 施策上 「規制」를 「促進」으로 전환한 바 있으나 지금까지 뚜렷한 實效를 거두기는 커녕 오히려 不況과 沈滯의 늪속으로 더욱 깊숙히 빠져드는 感마저 있다.

이와같은 狀況은 9月末 現在 未分壤된 아파트가 10,400棟에 達해 무려 1,400억원의 엄청난 資金이 死藏되어 있으며 庶民住宅資金 放出 實績도 올 支援規模 6,490억원중 9月末 現在 겨우 計劃額의 56%인 3,679억원에 불과하다는 것만을 보아도 대충 짐작이 간다.

이처럼 不況에 시달리고 있는 業界는 이제 새해市場을 심각히 헤아리고 있다. 需要의 程度에 死活이 걸려있기 때문이다. ♣♣♣